

# KIA 반등 이끄는 2년차 하준영, 예상보다 더 세다

“계속 자신감있게 좋은 투구 할 것”



더 세졌다. KIA 타이거즈의 고졸 2년차 좌완 하준영(21)이 팔승 조에서 무결점 투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화와의 광주경기에서 압권의 투구를 했다. 4-2로 앞선 7회초 고영창이 2타점 적시타를 맞고 동점을 허용한 시점이었다. 9회 1사까지 6명의 타자를 완전히 제압했다. 분위기가 한화로 넘어가는 흐름을 되돌려놓았다. 한화의 다이내믹이트 타선도 하준영의 완벽투에 밀리는 모습이였다. 하준영의 특급투에 힘입어 8회 해틀베이어가 투런포를 날렸다.

하준영이 길을 닦아 놓자 9회 1사후 소방수 김윤동이 올라와 두타자를 막았다. 하준영은 데뷔 2년 만에 첫 승을 낚았다. 팀은 개막 3연패 후 2연승을 거두고 기력을 회복했다. 아직 만 20살이 되지 않은 하준영의 힘이었다.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기량 발전상을 발을 정도로 구위가 급상승했다. 시범경기에서도 4경기에 등판해 4⅓이닝을 단 1안타만 내주고 6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위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불음표였다. 정규 시즌에 돌입하면 위력이 반감될 수 있었다. 많은 관중

과 응원에 승부차에는 어떻게 던질지 몰랐다

막상 정규리그가 시작되자 더 세졌다. 이날까지 3경기에 등판해 4⅓이닝을 소화하며 1피안타 1볼넷에 탈삼진만 7개를 뽑아냈다. 살아서 들어가는 140km대 중반의 직구, 좌우로 휘어지고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위협적이다. 제구도 흔들림이 없다. 근성 넘치는 표정, 안정된 투구폼과 빠른 팔 스윙으로 소방수급 투구를 하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 새로 발굴한 4명의 불펜진에서 유난히 빛나고 있다. 고영창, 문경찬, 이준영은 개막후에는 좋은 불을 던지면서도 실점하는 등 다소 주춤했다. 하준영만이 무결점 투구로 불펜진의 기둥이 되고 있다. 특히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잘 던지고 있다. 현재의 구위라면 소방수를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하준영은 첫 승 소감에 대해 “위기만 넘기자고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가 좌타자였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 자신있는 피칭을 할 수 있었다. 강타자들과 상대할 때는 승부근성이 생기는 거 같다. 체력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2이닝을 전력투구하는 게 내게는 가장 이상적인 거 같다. 계속 자신감있게 좋은 투구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독대분회와 신호분회가 우승을 놓고 다투는 결승전에서 관중 등 심판원들까지 긴장하고 있다.

## 제97회 고흥군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 ‘성료’

소록도병원대운동장에 주민 동호인 가족 등 400여 명 화합 다져 우승, 신호분회 준우승, 독대분회 공동 3위, 대서분회 A팀과 B팀

고흥군게이트볼협회(회장 임성섭)는 지난달 29일 국립소록도병원 대운동장에서 제97회 고흥군게이트볼협회장기 대회를 개최, 주민과 동호인 가족, 각계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대회는 고흥군과 군 의회와 체육회, 소록도병원의 후원으로 주민과의 화합의 한 마당 잔치를 벌여 훈훈한 개막식을 올렸다.

임성섭(고흥군게이트볼협회)회장은 대회사에서 “고흥군 게이트볼 동호인은 물론 주민과 가족들이 함께 화합과 친목을 다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준 고흥군과 의회 그리고 체육회와 소록도병원 관계자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화사한 봄꽃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록도에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정민(고흥군체육회)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고흥 군민을 한 마음으로 엮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것 같다.”며 “국민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 게이트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예선을 거쳐 결승에 진출한 독대분회와 신호분회는 치열한 접전 끝에 신호분회가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고 공동 3위에는 대서분회 A팀과 B팀이 차지해 시상상을 차지하고 내년 제98회 대회를 기약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추신수, 4연타석 삼진 이후 시즌 첫 안타 신고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호 안타를 날렸다. 추신수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5타수 1안타 2타점 4삼진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첫 경기에 나선 추신수는 4연타석 삼진의 수모를 당한 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적시타를 때려냈다. 시즌 타율은 0.200을 기록했다.

뉴시스

## 손흥민 “최고의 경기장, 실력 보여주자”

신축 홈 경기장 ‘입주를 앞둔 손흥민(토트넘)이 기대감과 각오를 동시에 드러냈다.

손흥민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화이트 하트 레인이 그립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경기장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트넘은 1898년 개장한 영국 북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을 120년 동안 사용해왔다. 구장 노후와 문제로 화이트 하트 레인을 2017년 폐장하고 6만2000석 규모의 새 경기장 건설에 착수했다.

다음 달 4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3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에서 개장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웬블리 스타디움은 사실상 예약했다. 리그 31골로 리그 득점 1위에 올라있다. 2위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와는 13골 차이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팬들도 우리만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경기장에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좋지 못했던 팀 성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토트넘은 최근 4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는(1무3패) 부진을 겪고 있다.

손흥민은 “우리는 4위 안에 있고 싶고 이 놀라운 구장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뛰고 싶다”면서 “나는 우리 팀을 믿는다.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최고의 경기장을 보유했다.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기장이다. 이제 선수들이 경기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메시 334승, 리그 개인최다 공동1위...10시즌연속 40골도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리가 개인 통산 최다승 타이틀을 세웠다.

메시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캄푸에서 벌어진 2018~2019 프리메리가 29라운드 에스파냐와 홈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메시는 이날 경기에서 대기록을 세웠다. 바르셀로나는 경기 후 “메시가 334승을 거뒀다. 이케르 카시야스(FC포르투)와 개인 최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메시는 2004~2005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프리메리기에 데뷔해 15

시즌 445경기 만에 334승(72무 39패)을 거뒀다. 카시야스와 동률을 이룬다. 1승만 더 거두면 역대 최다승 기록을 세운다.

앞서 카시야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프리메리가 510경기에 출전해 334승(87무 89패)을 기록했다. 현재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리가 포르투로 이적했다.

또 메시는 이날 두 골로 이번 시즌 40·41호골을 기록, 47골을 터뜨린 2009~2010시즌부터 10시즌 연속 40골을 달성했다.

바르셀로나가 리그 9경기를 남겨둔 데다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



피언스리그 8강, 국왕컵(코파 델 레이) 결승에도 올라있어 득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프리메리가 득점왕도 사실상 예약했다. 리그 31골로 리그 득점 1위에 올라있다. 2위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와는 13골 차이다.

자연의 숨겨진 우리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